

▶ 베트남 이주여성의 애환 그린 전남도립국악원 시대창극 '호영의 희망일기'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대적 질문 던지다

내일 전주국립무형유산원서 다채로운 안무·음악으로 구성

한국에 시집온 주인공 '호영' 시련 극복하며 성장 과정 담다

국제결혼 장려정책에 힘입어 2000년대 전후로 한국에 시집온 이민여성 상당수가 농어촌에서 가정을 꾸렸다.

이들 결혼이주 여성들은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와 인구증가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다름이 아닌 틀림'에 대한 문화인식의 차이로 편견과 차별을 받는 게 다반사. 낯선 땅에서 이들은 가족도 이웃도 아닌 이방인 같은 존재로 머물고 있다.

전남도립국악원(예술감독 유정영)은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전주국립무형유산원 일주문 공연장에서 선보이는 시대창극 '호영의 희망일기'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 시대의 물음을 던진다.

이번 공연은 국립무형유산원이 5월~10월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하고 있는 협업 교류공연의 일환으로, 지역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다.

전남도립국악원은 농도인 전남에도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 '호영의 희망일기'를 창단 30주년 기념작으로 지난해 제작했다.

작품은 다문화 가정의 애환을 픽션과 논픽션으로 구성했다. 꿈 많고 재주 많은 베트남 어부의 딸 '호영'이 월남전 참전용사인 할아버지와 극성맞은 할머니를 모신



전남도립국악원이 오는 28일 전주국립무형유산원 일주문 공연장에서 시대창극 '호영의 희망일기'를 선보인다. '호영의 희망일기'는 베트남 이주 여성의 애환을 그린 작품이다. 사진은 '호영의 희망일기'의 무대 배경인 무안 양파밭 풍경.

고 사는 무안 농촌 각 삼식이와 결혼을 하며 펼쳐지는 인생이야기를 담는다.

극은 베트남 전쟁 참전과 한류열풍으로 원망과 동경이 교차하는 한국에 시집온 호영이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아내와 어머니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사랑과 화합 휴먼 스토리로 월남전의 아픈 역사까지 용서와 화해로 풀어안고자 했다.

다양한 안무와 음악으로 구성된 호영의 일기는 연출·각색·작곡은 유정영 전남

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이, 대본은 정경진 작가, 안무는 정란·문외인 씨가 각각 맡았다.

특히 작곡가 송광식 씨가 컴퓨터 작곡과 음악디렉팅을 맡아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독특하고 흥겨운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베트남인 레 하이 프영 씨가 특별출연해 베트남의 전통현악기 '단보우'(저음의 온화한 음색이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한 베트남 사람들은

서사시의 내레이션을 표현하기 위해 이 악기를 사용) 연주해 다문화 가족들에게 고국의 향수를 전한다.

유정영 예술감독은 "이 시대에 당면한 사회적 문제와 현실을 창극에 담고자 했다. 당대의 정서와 예술적 감각을 담은 작품으로 훗날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석 무료.

/정해은 기자



청년 안중근, 조국 독립 위해 일제와 싸운 '진정한 영웅'

군산예술의전당 뮤지컬 '영웅' 성료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진행된 '뮤지컬 영웅'이 3회 전석 매진이라는 대기업을 토하며 폐막했다.

'뮤지컬 영웅'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기록한 작품으로, '뮤지컬 영웅' 최고의 '안중근'이라 평가받는 배우 정성화와 30대 안중근의 패기를 잘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던 배우 이지훈의 열연이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오직 조국의 독립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웠던 청년 안중근! 극적인 스토리와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장면들은 관객을 긴장 속으로 몰고 갔으며 요즘 같이 어려운 때 진정한 영웅이 그리운 관객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이를 반영하듯 공연 중간 마다 심어 차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호응이 쏟아졌으며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장면에서는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박수를 치는 해프닝도 발생했을 정도로 모두가 몰입하고 집중했던 150분을 이어갔다.

공연 관람층 또한 다양하게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어린이부터 수탈의 아픔을 겪은 노인층까지 다양한 관객들로 공연 전 1시간 전부터 삼삼오오 로비로 모여 공연을 기다리는 진풍경을 펼쳤다. /군산=장 현 기자



소리문화전당 브런치 콘서트 '낮달' 극단 명태 뮤지컬 '연가' 내일 무대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5월부터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에 브런치 콘서트 '낮달'을 실시한다.

'낮달'은 소리전당의 주간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전 11시 중점·모악당 로비·명인홀 등 다양한 공간으로 관객들을 초대해 합창, 뮤지컬, 인디, 탭,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8일에는 명인홀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극단 명태의 창작세미뮤지컬 '연가'를 무대에 올린다.

연가는 전주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텔링 공연. 사랑을 잃어버린 효린과 사랑을 찾기 위한 재우가 전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처음 만나 고즈넉한 한옥 풍경과 먹거리 문화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 번 사랑의 설렘을 고민하는 이야기다.

'만나게 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난다'는 메시지를 담은 뮤지컬 연가는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 공연 관람 후에는 브런치로 커피와 머핀을 제공한다. /정해은 기자

김제시립합창단 힐링음악회 내일 김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서

김제시립합창단은 지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민들의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6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여름밤 함께하는 힐링음악회를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인기 뮤지컬 미스사이공의 Last night of the world, 레미제라블의 Bring Him Home, 렌트의 Season of love 와 외국 가곡들 그리고 조금은 낯선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집시의 노래와 축제의 노래, 인기영화 OST 등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방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김제시립합창단이 아심차게 준비했다.

깊어가는 여름밤 잔잔하고 마음을 달래줄 '작은 힐링음악회'를 만들어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며 본 공연은 무료이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세상 사람들의 심장 울릴 걸작 꼭 남기고파”

▶ 이 사람 - 70여년 만에 귀향 '한국의 세잔느' 박재택 화백

“고향인 순창에 온 덕분에 열정이 샘물처럼 솟구쳐 빨치산 시절 국군에 불참해 끌려간 광주포로수용소에서 오지호 화백 만나 스승으로 모셔 그림은 나의 운명이었던 거 같아”



70여년 만에 귀향한 박재택(오른쪽) 화백이 황숙주 순창군수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푸근한 고향 품에 안긴 덕분에 열정이 샘물처럼 솟구쳐요. 세상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게 울릴 걸작을 꼭 하나 남기고 싶어요.”

'한국의 세잔느'로 불리는 박재택(89) 화백이 70여년 만에 귀향했다. 국내 서양화단의 원로 작가로 추앙받는 박 화백은 최근 고향인 순창에 돌아와 작품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그가 빨치산 출신으로 험난한 인생역정을 극복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6·25를 앞둔 시점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박 화백은 지난해 12월부터 순창군 적성면 구암마을 '삼진강 미술관'에 동지를 틀었다. "순창이 문화예술의 고장으

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고향에 돌아와 큰 나무가 돼 달라"는 황숙주 군수의 요청을 받아들여 16살 이후 계속해 온 타향살이를 접은 것이다.

망구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붓을 들고 화폭과 씨름을 하고 있다. 최근 새 작품을 위해 200~300호 대작 캔버스를 10개나 구입할 정도로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박 화백은 대담한 원색의 붓질로 자연

의 강렬한 리얼리티를 포착해 독창적인 색감과 표현력으로 구상화의 새 길을 개척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술가로서 최고의 명예라는 '대한민국 예술인상(2013년)'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화백은 빨치산 출신으로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1929년 순창읍에서 태어나 중학교 4학년(당시 중학교는 6년제)까지 고향에서 살다 서울로 전학을 갔다. 서울대 미술에 들어

갔지만, 입학 몇 달 만에 6·25가 터지면서 학업을 중도포기 할 수 밖에 없었다. 보름을 걸어 고향으로 돌아온 뒤 회문산 빨치산 전복 도당에 들어가 지리산·운장산 등을 1년간 누비고 다녔다.

“총격전 중에 총알을 맞았지만 어깨쪽 지 아래를 관통해 팔이 떨어지지 않은 것도 그렇고, 국군에 붙잡혀 끌려간 광주포로수용소에서 서양화가 오지호 화백을 만나 스승으로 모신 인연도 그렇고 그림이 운명이었다 같아요.”

박 화백은 조선대 미술을 나온 뒤 고교 교사를 거쳐 원광대 미술 학장까지 지냈다. 전주여고에서는 이낙연 총리의 부인 김숙희 여사를 가르치기도 했다. 김 여사는 대학진학을 앞두고 이화여대 미술을 희망했지만, 담임 교사는 “합격이 어려울 것”이라며 원사를 써주지 않았다. 박 화백은 “내가 나서 숙희의 그림 실력이라면 붙을 것”이라며 시험을 볼 것을 권유했고, 결국 이대에 합격한 에 피소드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사제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김 여사는 올 3월에도 순창으로 박 화백을 찾아 왔다. 김 여사는 당시 “30세 가까운 연세에도 붓을 놓지 않고 작품을 하시는 스승님의 치열한 예술혼과 열정이 존경스럽다. '예술가는 돈에 한 눈을 팔아서선 안된다'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긴다”고 주변에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도립국악원, '무지개 오케스트라' 내일 창단

한 바 있다. 엘 시스템마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베네수엘라 예술 교육시스템'으로 기적의 오케스트라로 평가받는다.

이번 창단을 위해 국립국악원은 방문 교육 형태의 국악오케스트라 사업을 제안하였고, 순창군(군수 황숙주)과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근)이 운영예산 및 학생관리·차원에, 순창군 청소년수련관(관장 이상은)이 사업 운영에 적극 화답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의장안주열)은 최초사업비를 후원했다.

총 1억2,000만원의 창단사업비는 약기구 및 예술교육, 청소년 교통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의 단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0명으로 구성됐다. 다문화 청소년은 8명(20%)으로, 국악원은 향후 다문화 단원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교육은 7월 3일부터 국악오케스트라와

관소리 등 2개 파트·12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가야금·거문고·해금·아쟁·대금·피리·태평소·타악·사물·신디·관소리 등 1:1 형식의 파트연습과 국악관현악, 아의 현장학습, 2차 3일 예술캠프를 진행한다. 국악원은 10명의 강사를 주 2회 순창군에 파견하여 연간 1004시간의 예술교육을 갖는다.

다문화 청소년인 초등학교 6년 주모 양은 단원 오디션에서 “장남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보았던 멋진 국악공연이 잊혀 지지 않는다. 한국악기를 꼭 배우고 싶어서 단원모집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국악인이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정해은 기자

다문화·비다문화 청소년이 음악을 통한 어울림 속에서 포용력을 배운다.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은 순창군 청소년들로 구성된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를 창단한다. 창단식은 28일 오후 3시 순창 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는 다문화·비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전통예술 교육 및 국악연주 기회를 제공,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이다.

국악원은 이에 앞서 2012년에도 보육원 아동을 대상으로 '바람꽃 국악오케스트라'를 창단 한국관 엘 시스템마를 추진